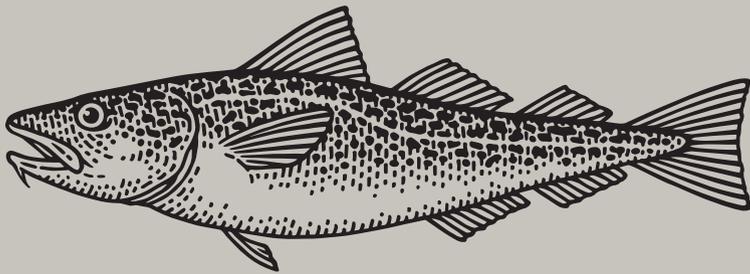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유럽 역사를 휘저은 물고기

대구



Cod

물고기가 세계사를 바꿨다고 말하면 믿겠는가? 늦가을에 제맛인 대구(大口)는 바이킹의 대이동이 있었던 8세기부터 지금까지 1000여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하며 유럽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파장을 일으킨 물고기로 남았다. 부를 쌓는 수단에서 전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던 대구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다.

글 편집실



Viking

대구, 유럽인의 넘버원 생선이 되다

비린 맛이 거의 없고 도톰한 살이 담백하고 부드러운 대구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물고기다. 특히 대구는 서구권의 국민 생선일 정도로 이를 활용한 음식 가짓수도 많다. 우리는 언제부터 대구를 즐겨 먹기 시작했을까?

대구만큼 인류와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물고기도 드물다. 얇은 바다인 대륙붕에 살던 대구는 선사시대부터 인류의 식량자원이었다. 이런 대구가 훌륭한 먹거리로써 진가를 발휘한 것은 8세기 '바이킹'에 의해서다. 바이킹은 8세기 말부터 11세기 초까지 유럽·러시아 등에 침략해 약탈 등을 행했는데, 바이킹이 멀리 떨어진 대륙으로의 모험과 항해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대구'와 연관이 있다. 바이킹은 유럽 북부 어장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가로질러 북아메리카 어장에서 대구를 잡아들

였다. 당시 바이킹은 다른 종족들은 몰랐던 '대구 저장법'과 '대구 말리는 법'을 알고 있었는데, 이 말린 대구는 바이킹이 항해하는 동안 일용할 아주 좋은 양식이 되었다. 바이킹은 말린 대구로 배를 채우며 거친 항해를 이겨내고 콜럼버스보다 500년 앞서 아메리카 대륙을 밟고, 현대 러시아의 기원인 키예프 공국을 창건하기에 이르렀다. 바이킹에 이어 1400년대, 스페인과 프랑스 경계에 사는 유럽 내 소수민족인 '바스크족'은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대구 황금어장을 발견하며 대구잡이로 무지막지한 돈을 벌었다. 바스크족은 수백 년간 어장의 위치를 비밀에 부쳤고 유럽인들은 바스크족이 어디서 대구를 잡는지 알 수 없었다. 바스크족의 독점 정보는 이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에 더해 바스크족은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염장법'을 개발하여 많은 유럽인에게 절인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대구를 팔아먹으며 톡톡히 재미를 봤다.

뉴잉글랜드 역시 대구교역이 활발히 일어났던 상업의 중심지였다. 당시 이곳에는 대구로 돈을 번 사람이 많아 '대구 귀족'이라는 말까지 유행했을 정도였다.

영국-아이슬란드, 대구전쟁을 벌이다

알고 보면 대구는 전쟁까지 불러일으킨 어마무시한 물고기다. 영국과 아이슬란드는 대구 조업권을 놓고 18년간 이른바 '대구전쟁(The Cod Wars)'을 치렀다. 1958년 아이슬란드는 대구가 가득한 근해 어장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 어선들의 남획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기존 영해 4해리를 12해리까지 확대했다. 경제 대부분을 수산업에 의존하던 아이슬란드에 있어 남획은 밥줄을 끊게 하는 치명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의 고강도 대책으로 인해 대구를 잡을

수 있는 어장이 축소된 영국은 반발했고 이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영국과 아이슬란드는 대구 어장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결국 1961년 2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인정하며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10년 뒤인 1972년 아이슬란드가 다시 영해를 50해리로 확대하자 2차 대구전쟁이 발발했다. 이듬해 13만 톤 한도 내에서 조업하는 조건으로 영국은 50해리 영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구를 향한 영국의 집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구전쟁은 꼭 3년 뒤 다시 일어났다. 아이슬란드가 200해리 영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3차 대구전쟁도 아이슬란드의 승리로 끝났다. 아이슬란드가 영국 어선이 철수하지 않으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즈음에는 200해리 경제수역이 일반화되는 추세이기도 했다.





결국 세 차례 대구전쟁은 아이슬란드의 승리로 끝이 났다. 아울러 대구전쟁을 통해 아이슬란드도 값진 교훈을 얻었다. 어업에만 의존해서는 국가의 지속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융과 관광 개발에 힘을 쏟았고 이 덕에 아이슬란드는 풍요를 누렸다.

유럽 역사 바꾼 대구에 필적할 만한 물고기가 한국에도 있었다

대구만큼이나 사회경제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물고기가 한국에도 있었다. 바로 서해의 조기와 동해의 명태다. 몸에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해서 조기(助氣)라는 이름이 붙은 이 물고기는 제수용으로 빠지지 않고 상에 올랐다. 엄청난 양의 조기

가 팔려나갔다. '금태'로 불릴 만큼 귀한 몸, 명태는 바삭 말린 북어로 전국에 유통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쌀과 더불어 현금과 거래되기도 했다. 아쉽게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변화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1995년 6,722t에 달하던 동해안의 명태 어획량은 20년 후인 2015년 3t으로 줄었고, 지난 2017년엔 0.2t에 그친 상황이다. 이는 대구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에 들어 무분별한 남획과 기후 온난화로 어획량이 대폭 감소한 대구는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구 1마리 값이 쌀 한 가마니를 호가하는 등 '바다의 귀족'으로 불리기도 했다. 물고기가 사라지는 바다에서 어업은 활기를 잃었다. 지속가능한 생태와 어업을 인류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때이다. 🐟

